명당 많은 도암 '죽으면 묻히고 싶은 곳'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땅의 숨결을 따라 〈18〉

예로부터 강진군은 산세가 아름답고 명당길지(明堂吉地)가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화방산 전경.

■ 강진의 명혈들

예로부터 강진사람들은 '살아서는 칠량에 터를 일구고, 죽어서는 보암(도암의 옛 지명)에 묻히고 싶다(生居七良, 死去寶岩)'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고 한다. 육지의 비옥한 땅에서 소출되는 오곡이 여물고, 사시사철 바다의 어물(魚物)이 풍요로운 칠량에서 살다가, 죽으면 산세(山勢)가 아름답고 명당 길지가 많은 도암에 묻히고 싶다는 것은 삶의 이상향과 신분 상승을 꿈꾸는 기층민들의 풍수적 소망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도암면에는 수많은 명혈들이 있고, 그 대부분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도암면 항촌리 부근에 있는 운중복월형(雲中伏月形)은 달이 구름에 절반쯤 묻혀서 마치 달이 구름에 엎드려 있는 것 같은 형국이다.

이곳은 달의 규각(圭角)에 쌍혈(雙穴)로 집을 지었고, 곤좌간향(坤坐艮向)과 경좌갑향(庚坐甲向)이 되었다. 또 일이승의 결록으로 아직까지 비어있지만 일반적인 혈증(穴證)이 없어서 혈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혈전(穴前)에 복부(伏釜)와 연주(連珠)가 뒤엉켜서 마치 구름처럼 모여드는데, 혈궁(穴宮)이 비습(卑濕)하여 혈을 찾는다 할지라도 물을 피하기가 쉽지

"재물 넘치고 인재 배출되는 땅"

않다. 만약에 이를 찾아 쓴다면, 천하게 키운 삼형제가 어사화(御史花)를 머리에 꽂고 금의환향하여 집안을 크게 일으킬 것이라고 한다.

또 신전면 주작산 북쪽 중턱에는 마치 북쪽 절벽위에 옥으로 만든 등에 불을 밝혀 걸어놓은 것 같은 옥등괘벽형(玉燈掛壁形)이 있지만 용장혈졸(龍壯穴卒)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당판(堂板)이 작아서 혈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안산으로, 기치창검(旗幟槍劍)이 백리에 둘러있으며, 팔백연화(八百煙華)와 삼천분대(三千粉黛)가 나열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주작산 남쪽에는 복숭아꽃이 땅에 떨어져 있는 도화낙지형(桃花落地形)의 양택(陽宅)이 간인방(艮寅方)의 영천수(靈泉水)를 앞에 두고 유좌묘향(酉坐卯向)으로 터를 이루고 있으니, 이곳을 얻어 집을 짓는다면 성조후 10년안에 발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신학산(神鶴山) 근처에 숨어 학이 하늘을 나는 것을 구경하면서 물을 찾던 새끼 사슴 한 마리가, 때맞춰 승리산 뒤쪽의 독수리(매봉)에게 쫓기는 호랑이를 보고 놀라서 물 구렁에 빠져버렸는데, 헛발을 디딘 발목과 모가지, 그리고 놀란 가슴으로 가픈 숨을 헐떡이는 허파에 혈이 맺었다.

혈이 가장 크게 맺힌 허파를 제외한 목과 발목에는 이미 묘를 써서 발복하였으니 '아남그룹'의 창업자인 김향수선생의 선산이다.

그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학이 하늘을 가르는 비학등공형(飛鶴騰空形)이 유좌묘향(酉坐卯向)의 기룡체로 혈이 크게 맺혀 있다. 또 석문의 양유동에 있는 해남윤씨 도선산은 신선이 춤을 추는 선인무수형(仙人舞袖形)이다.

지석리, 강정리, 덕년리 부근에는 작아도 금쪽같은 혈들이 널려있고, 특히 회룡동에는 부모와 헤어진 곳을 남 몰래 숨어서 뒤돌아보는 회룡은산형(回龍隱山形)이 대결(大結)하였다. 이는 재물이 넘치고 인재가 수없이 배출되어 한 집안을 일거에 일으켜서 명문세가의 영예를 대대로 이어가는 땅이다.

이외에도 도암면에는 수없이 많은 명혈과 길지가 모여 있으며, 산과 물의 허리를 잘라내는 인재(人災)를 막는다면 그 복록(福祿)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화방산(花芳山)의 병오용(丙午龍)이 십 여리를 날아가다가 탐진강 상류인 금강(錦江)을 만나 목마른 용이 물을 마시고 있는 갈용음수형

자연훼손 없다면 오래 발복

(渴龍飮水形)이 병영면의 용두(龍頭)에 숨어있다. 이를 두고 문왕사(文王社) 선생과 장금농(張金農)선생은" 삼형제가 급제를 하는데 그 중에 둘째가 먼저 출사하여 집안을 일으키는 땅으로, 신안(神眼)이 아니면 혈면(穴面)을 볼 수가 없다"고 하였다.

군동면의 화방산이 자계(子癸)로 낙맥하여 원봉을 이룬 곳과, 비파산(琵琶山)이 북쪽으로 낙맥하여 곤신(坤申), 건해(乾亥), 신술(辛戌)로 전신(轉身)한 곳에 꾀꼬리가 버드나무에 집을 지은 모양의 유지앵소형(柳枝鸎巢形)이 암수가 서로 마주보고 혈을 맺었으니 기묘(奇妙)하기 짝이 없다.

이를 함께 얻어 쓴다면, 손신(巽辛)이 본신(本身)으로 특립(特立)하고, 일월한문에 갑산(甲山)과 병정(丙丁)이 높으니 대대로 장원급제 나오고, 국가 경제를 총괄하는 재상(宰相)이 나오고, 족보(族譜)에 부부가 홍화(紅花)와 백화(白花)의 수(繡)를 놓을 것이다.

비파산 남록(南麓)에 숨어있는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은 성현(聖賢)이 나오는 땅이지만, 공동묘지처럼 민묘(民墓)가 빼곡하게 들어 있어서 혈을 찾기가 어렵다.

/전종주 호남대 교수·한국 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 전라도 역사이야기

-암태도 소작쟁의 영웅 서태석

소작농 설움 전국에 알린 일제하 농민운동 지도자

1924년 6월 농민 600여 명이 목포경찰서 앞마당에 등장했다. 비바람을 무릅쓰고 뱃길을 헤쳐온 암태소작회 농민들이었다.

이들은 솥단지를 걸고 구속된 소작회 지도자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목포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고, 바야흐로 일제하 한국 농민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순간이었다. 그 유명한 암태도 소작쟁의의 분수령이었다.

무안군(현 신안군)의 궁벽한 섬 암태도에서 일어난 지주와 소작인 간의 갈등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다. 단식동맹을 맺고 단결로 호소하는 암태 소작인들의 목소리는 목포를 넘어 서울로,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가련가긍한 소작농들의 처지에 동정하는 목소리가 사회적 반향을 얻게 되었다.

투쟁은 1년 남짓 지속되었고, 일제하 농민운동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농민들의 승리로 기록되었다. 한국인 지주에 대한 총독부의 차별정책도 작용했지만, 이 승리의 배후에는 서태석(1885-1943)이 란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다.

자작농의 아들로 태어난 서태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삶의 결을 변화시켰다. 그는 항일운동으로 3차례에 걸쳐 6년간 투옥되었다.

1920년 목포에서 3·1운동 1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다 체포된 것을 필두로 1924년 암태도 소작쟁의, 1928년 춘경원당(春景園黨·비정통파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3차 투옥되었다. 암태도에는 그에 대한 신화적 얘기들이 전해진다.

한학을 공부했던 서태석은 한약방을 열어 명의로 이름을 얻었고, 주민들의 신임을 얻어 1907년부터 7년간 면장으로 일했다. 3·1운동 시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고, 1922년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가 사회주의를 접했다. 만세운동의 주도자에서 지역 소작인운동의 지도자로, 전국 조직인 조선노동총동맹 중앙위원으로 발전했다.

그가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1925년에는 불혹의 나이였다. 식민지 백성과 소작농이 겪어야 하는 비참한 삶의 사회경제적 좌표를 삶으로 체득하기에 충분한 나이였다. 이후 그가 전남을 대표하는 농민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주요 지도자로 활동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민족해방과 인간해방을 열망했던 이 사내는 연이은 투옥과 모진 고문의 후유증을 견뎌낼 수 없었다. 그는 1943년 6월 여동생이 살던 압해면 장갑리의 논둑길에서 비감한 세상을 버렸다. 긴 암흑 속에 묻혀 있던 서태석의 이야기는 1980년 소설화되면서 세상의 빛을 보았고, 2003년 정부가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면서 공식 역사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정병준 목포대 교수

■ 전라도 방언 (17)

"어서 들어와겨"

전라도 기성세대의 말에서 우리는 "어서 들어와겨요(=들어오셔요)"라든가, "식기 전에 어서 드시겨라우(=드셔요). 한아부지 어디 가겠냐?(=가셨느냐) 어르신 진지 잡사겠소?(=잡수셨소) 손님이 와겠는디(=와 계시는데). 언제 봐겠소?(=보셨소) 짐장(김장)다 해겠소?"와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 이것은 주체를 높이는 말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겨'의 어원은 무엇일까? 이것은 기원적으로 겨(在)와 관계가 있다. 조선시대의 이두에서는 '在'자를 '겨/견'으로 읽었거니와 현대어 '계시다'의 옛말은 '겨시다'였다. 이 '겨'형은 점차 '계/게'로도 변이하였는데 현재 전남방언에 전형적으로 남아 있고, 기타 전북·경북지역의 일부에서 쓰이고 있다.

19세기 후기의 전라도 판소리 자료에는 이 말이 많이 나타난다. "나를 차져 나오시다가 이런 욕을 보와겻소(심청)", "어만니, 엇지 와겨소(수절가)", 도련임 ■려와겨 춘향을 살여주오(춘향가)", "장군이 와겨■니(충열)"등.

현대국어에서는 '-시-'가 주체높임법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위의 '겨'도 존칭의 뜻을 가진 귀중한 우리말 유산 중의 하나다.

/이돈주 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개찌버리사초

동방사니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식물로 그늘진 숲속이나 습한 풀밭에서 무리를 지어 자란다.

키는 20~40㎝ 정도이며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개화 시기는 5~6월이다.

꽃이 화려하지 않아 눈에 쉽게 띠지 않은 꽃이지만 자세히 보면 볼수록 소박하고 정이 가는 꽃이다.

/라규채 생태사진가